

정보통신산업의 해외진출 확대와 지원

세계 정보통신시장의 개방화·자유화 추세에 따른 시장확대로 앞으로 몇 년간이 해외시장진출을 위한 절호의 기회이며, 특히 개도국의 통신망현대화계획, 시장개방정책 등을 적극 활용하여 국내 통신장비 및 자본의 해외진출이 활성화되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대비가 필요한 시점이기도 하다.

권 병 욱 정보통신부 대외협력담당관실 협력2담당

해외진출 확대의 필요성

현재 세계통신시장은 통신시장 개방화·자유화가 진행됨에 따라 세계 유수한 통신사업자간에 패권경쟁과 시장선점을 위한 해외진출이 급증하고 있다. 작년 12월 WTO 통상각료회담을 계기로 미국의 주도로 정보통신 기술 제품의 무관세화를 위한 정보기술협정(ITA)의 체결이 합의된 바 있고, 또한 금년 2월 15일에는 WTO 기본통신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1998년부터 단계적으로 세계통신시장이 상당부분 자유화될 전망이다.

이러한 세계 정보통신시장의 개방화·자유화 추세에 따른 시장확대로 앞으로 몇 년간이 해외시장진출을 위한 절호의 기회이며, 특히 개도국의 통신망현대화계획, 시장개방정책 등을 적극 활용하여 국내 통신장비 및 자본의 해외진출이 활성화되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대비가 필요한 시점이기도 하다.

그러나 국내 통신업체의 경우 해외인지도의 열위, 해외진출경험 및 자금지원 부족등으로 인해 해외경쟁력이 열악하므로 정부·통신사업자·통신제조업체간의 긴밀한 협력체제 구축과 면밀한 사전 투자분석 및

사업별·지역별 진출전략 수립에 의한 체계적 해외진출 지원대책이 필요한 시점인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세계적인 통신관련 연구기관인 Booz-Allen & Hamilton의 보고서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통신사업이 국제화됨에 따라 이러한 준비를 게을리했던 통신회사들은 국내에서만 사업해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될 것이다. 이러한 회사들은 국내시장에서는 경쟁이 심화되고, 그렇다고 해외로 진출할 수 없는 곤경에 처하게 될 것이다.”

국내업체의 해외진출 현황

수출실적 및 전망

'94년 91억불, '95년 143억불, '96년 상반기 59억불의 무역 흑자를 기록한 정보통신산업은 지속적인 수출증대와 무역 흑자를 기록하였고, 1995년 정보통신산업의 수출규모는 222억 8천만달러이며, 2001년에는 약 588억 3천만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어 연평균 성장율이 18.35%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표 1〉 정보통신산업의 수출실적 및 전망

(단위 : 백만불)

구분 \ 연도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2001
정 보 기 기	2,648	2,808	3,157	3,089	3,252	3,423	4,322
통 신 기 기	983	984	1,216	1,486	1,705	1,957	4,160
부 품	8,904	9,922	10,398	14,654	17,301	20,427	50,309
소 프 트 웨 어	13.9	15.6	11.7	15.7	20.6	22.7	42.8
합 계	12,549	13,730	14,783	19,245	22,279	25,830	58,834

해외진출 현황

국내 정보통신산업의 해외진출은 '91년 필리핀에 540만불의 TDx 교환기를 수출한 것이 최초이며, 그 후 역사가 일천함에도 연평균 성장율 32.8%의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 초기의 단순장비 수출에서

통신서비스사업, 통신망 건설, 합작공장 설립, CDMA디지털 이동통신장비 및 단말기 수출 등 진출 분야가 점차 확대되고 있으며, 주로 개도국을 대상으로 선진국의 유수업체와의 경쟁을 통해 틈새시장에 진출해 왔으나, 최근 세계 각국 업체들과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짐에 따라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표 2〉 연도별 해외진출 현황

(단위 : 천불)

구분 \ 연도	'91	'92	'93	'94	'95	'96	계
T D X 수 출	13,940	39,810	98,590	176,016	168,754	195,841	692,951
C D M A 수 출	-	-	-	-	-	552,145	552,145
통 신 서 비 스	-	-	-	26,450	161,170	652,612	840,232
통 신 망 건 설	-	-	11,880	-	107,100	282,800	401,780
합 작 공 장 설 립	1,590	750	45,950	6,050	11,045	21,000	86,385
계	15,530	40,560	156,420	208,516	448,069	1,704,398	2,573,493

해외진출 확대를 위한 추진전략 및 지원활동 계획

추진전략

정보통신산업의 해외진출을 확대하기 위한 추진전

략으로 지역별·사업별로 우선순위를 두어 체계적인 진출이 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먼저 지역별 전략으로는 성장 잠재력, 시장규모, 진출 가능분야 및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 거점국가를 선정하고, 거점국가에 대하여는 장관회담 및 통신협력위원회 개최, 고위인사 초청 및 방문활동 강화, 민관합동 사절단 파견, 전시회 및 설명회 개최, EDCF 차관 지원 확대 등을 통해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아시아 지역>

중국, 베트남 등을 이지역의 거점국가로 선정하고, 중국은 통신망 건설사업, CDMA 서비스 및 장비수출, ATM 교환기수출, 각종 통신장비 합작공장 설립 등을 베트남은 TDX수출, 통신망 건설 및 운영사업, CDMA 서비스 및 장비수출 등을 중점 진출분야로 선정하여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중동·아프리카 지역>

시리아, 튀니지 등을 이지역의 거점국가로 선정하고, 시리아는 TDX 교환기 합작공장 설립, 통신망 건설 등에 역점을 두고, 튀니지는 통신망 건설사업, 교환기 및 전송장비 합작공장 설립 등에 역점을 두어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러시아·CIS지역>

러시아, 우크라이나, 우즈베키스탄 등을 이 지역의 거점국가로 선정하고, 러시아는 CDMA 장비 및 서비스, 기본통신서비스, 통신망 건설, TDX 합작공장 설립 등을 우크라이나는 TDX수출, 이동전화서비스, 통신망건설 및 운용사업 등을 우즈베키스탄에서는 TDX수출, 기본통신서비스, 통신망건설 및 합작공장 설립사업 등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동구지역>

루마니아, 폴란드 등을 이 지역의 거점국가로 선정하고, 루마니아는 TDX수출, 케이블 합작공장설립,

통신망 현대화 및 민영화 사업 등을 풀란다는 이동전화 및 무선호출서비스, 통신망 현대화 사업 등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미국·일본 등 선진지역>

미국은 CDMA 시스템 및 단말기수출, PCS사업, 저궤도 위성통신사업(LEO) 등을, 일본·서구지역은 PCS, 저궤도 위성통신, 소프트웨어, 각종 단말기 진출과 기술제휴 및 표준화 상호협력 등을 중점 진출 분야로 선정,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다음 사업별 전략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통신서비스분야>

사전투자, 수익성 분석 및 후속관리 기능을 대폭 강화하고, 경영권 확보를 위한 지분투자 및 장비제조업체와의 공동진출, 전략시장의 조기선정 및 선진사업자와의 전략적 제휴 유도, 해외투자 재원 조달의 다원화 및 지역 금융 전문인력 확보 및 양성유도 등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TDX 장비분야>

기술개발 투자확대를 통한 성능향상 및 국제 경쟁력을 제고하고, 효율적인 사후관리를 통한 신뢰성 향상 및 국내업체간의 과당경쟁 지양, EDCF등 해외진출 금융 및 보험지원의 확대, 중남미·아프리카지역 등 진출지역 확대 등의 방침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CDMA 디지털 이동통신장비분야>

지역별 시장분석에 의한 CDMA 이동통신 수요조사를 통해 미국, 중남미, 러시아, 아시아 등 전략적 진출거점 국가를 선정하여 집중 지원하고, 산·관·연 공동으로 세미나, 전시회, 설명회, 박람회 개최 등을 통해 국내 CDMA 개발성과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진출 대상국가의 실무자 및 전문가를 초청, CDMA 운영실태 견학을 확대·실시하고, PROJECT FINANCING지원과 CDMA등 정보통신분야의 전략적 수출품목에 대한 보험료 할인제도 신설 검

토 등 해외진출 금융 및 보험지원의 확대를 촉진할 방침이다.

〈소프트웨어 분야〉

SW수출진흥전담기구를 설치하여 SW 수출관련 통합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SW해외시장 개척 및 수출지원을 위한 관련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해외 선진업체와의 전략적 제휴 및 합작을 지원하고, 국내·외에 국산 SW의 상설 전시판매장의 설치 유도 등의 방침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해외진출 지원활동 계획

〈해외진출지원협의회 운영의 활성화〉

국내 업체의 해외진출시 애로사항을 수렴하고 효과적인 해외진출 전략을 공동모색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산업 해외진출지원협의회를 월1회이상 개최할 계획이다.

또한, 필요시 소회의 및 분과별 회의를 수시로 개최하고, 조사·연구를 위한 전담기관을 지정·운영하여 체계적인 해외진출 확대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정부차원의 대외협력활동 강화〉

제2차 한·일 통신장관회담을 서울에서 개최하여 지난해의 제1차 장관회담시의 합의사항에 대한 추진실태를 확인하고, 한·일간 정보통신관련 정책, 기술 및 연구개발에 대한 협력을 확대하며, 민간산업체간 기술협력을 통한 국내업체의 일본 시장진출을 도모할 계획이다.

또한 제6차 한·중 장관회담을 서울에서 개최하여 초고속정보통신, 위성통신 분야의 협력방안 구체화 등 지난해의 합의사항에 대한 추진실태를 확인하고, ATM 교환기 공동 연구개발 촉진 및 CDMA 장비수출, 이동통신서비스 제공 등을 추진함으로써 국내업체의 중국시장 진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현재 7개국과 개최중인 통신협력위원회를 멕시코·베트남·튀니지를 포함한 10개국으로 확대하며, 현재 13개국인 협력 각서 체결국을 이스라엘·인도를 추가하여 15개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주요국의 정보통신관련 고위인사를 초청하고 우리측 고위인사의 방문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며, 시장개척 및 해외진출지원을 위한 민간 합동사업단을 파견하고, 경제공동위·산업협력위 등 정보통신 관련 회의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방침이다.

〈APII 구축 및 협력센터의 전략적 활용〉

아·태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을 위한 역내 국가간 상호연동시험과 관련기술 표준화사업에 대한 국내 사업자의 참여를 지원하며, 앞으로 APEC 전회원국을 연결하는 실질적인 망구축 사업에 국내 통신사업자의 참여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는 등 APII 구축과 협력센터를 전략적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해외진출 선행사업의 확대·강화〉

한국통신·한국국제협력단(KOICA) 등을 중심으로 기술인력 초청훈련과 기술인력 파견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한국전자통신연구소 등에 진출 대상국의 연구인력을 초청하여 훈련 및 공동연구소를 실시할 계획이다.

〈해외진출 금융 및 보험지원 확대〉

관련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EDCF 차관과 KOICA 무상원조를 확대하고, 수출보험제도의 개선과 연불 등 금융지원의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기타, 업체간 전략적 제휴와 공동진출을 위해 합작공장 설립과 선진국 기업과의 전략적 제휴를 확대하고, 한국전자통신연구소 및 통신개발연구원에 해외진출 관련 전담팀을 설치·운영하고, 각종 세미나·전시회 등에 적극 참여하며, 진출대상국에서의 설명회 개최를 통해 해외진출을 위한 홍보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